



노리고 있다.

후발업체로서 노트북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해온 HP는 그 방법의 하나로 지난 93년 음니북 300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휴대용 장비에 IR 링크를 탑재해 왔다.

IR 링크는 비슷한 장치가 설치된 컴퓨터와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IR기능이 설치된 주변장치들과 네트워크 포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케이블 없이 이루어진다. IR링크는 내소날 세미콘다터의 '수퍼I/O' 칩인 PC87334로 관리된다. PC87334는 IR송수신기와 인터페이스되는 최초의 I/O 칩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병렬 및 직렬 포트와 드라이브, 키보드와 마우스 제어 등 거의 모든 I/O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집적해 놓았다. 이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HP의 새로운 노트북은 기업의 구매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기업 구매자들의 대다수는 노트북을 데스크톱 시스템을 보충하는 추가 장비로 생각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컴퓨터로 삼고 싶어한다.

이들 기업 구매자들은 노트북이 파일 전송과 같은 작업을 무리없이 해낼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것은 HP가 지난해 120MHz펜티엄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1.2GB 하드 드라이브, 16MB RAM, 10.4인치 SVAG 능동행렬 LCD를 기본 사양으로 한 3Kg 정도의 무게를 지닌 고성능 음니북5500CTS를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HP는 노트북을 사무실 환경에 더욱 쉽게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최근, 사용자가 음니북 5500으로 네트워크와 주변기기는 물론 표준 크기의 키보드와 모니터에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PCI와 ISA슬롯을 내장한 도킹 스테이션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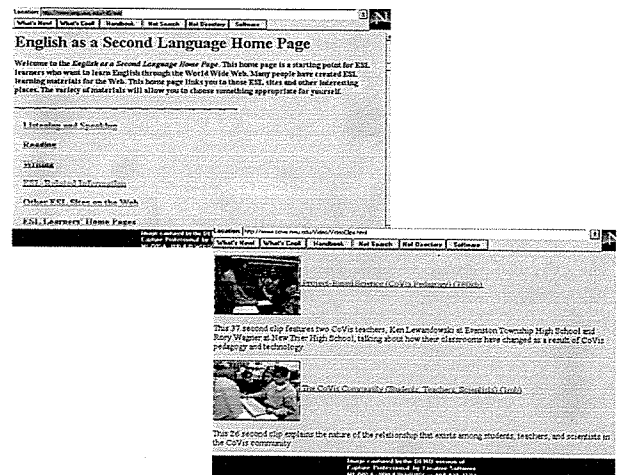
HP는 이 제품으로 사용자들이 노트북을 데스크톱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음니북 5500CTS의 가격은 6천6백30달러이며, 도킹 스테이션의 가격은 6백50달러이다.

기가 인포메이션 그룹 (Giga Information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노트북과 서브 노트북 컴퓨터가 98년 까지 IR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HP 이외의 많은 노트북 제조업체들이 IR링크를 노트북의 표준 사양으로 추가시킴으로써 IR링크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HP의 자사 레이저젯과 데스크젯 프린터들중 다수에 IR 포트를 장착하고 있으며, 노키아 그룹은 IR노트북에서 모뎀을 통해 파일을 다운받는 것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IR포트를 장착한 셀룰러 폰을 선보였다.

HP는 비행기, 자동차, 호텔객실, 공항 등 이동 근무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IR장비를 볼 수 있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

### ■ 듣기, 말하기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인터넷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삼페인캠퍼스의 어학연구소가 개발해 WWW에 올려놓은 '웹에서 영어배우기 (Learning English on the Web)' 라는 이름의 이 홈페이지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개발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일리노이대학교 어학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재와 교육법을 원용한 이 웹 서비스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로 언어의 네가지 기능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더욱 돋보인다. 특히 듣기와 말하기 코너가 유익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다. 마우스로 클릭

하며 원하는 부분을 수차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흥미롭다.

‘인터넷 토크라이드’ 프로그램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어 시사영어를 비롯한 중·고급 청취까지 가능하다. 말하기 코너는 기본단어의 발음과 주요 표현 익히기부터 문장과 문단단위로 진도가 설계되어 있다. 비디오 코너도 있어 문자에 지루해지면 영상도 접할 수 있다.

이곳의 영어본문 청취를 하려면 넷스케이프 오디오 플레이어와 같은 청취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PC에 사운드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주소는 <http://www.ed.uiuc.edu/EdPsy-387/Rongchang-Li/esl/index.html>이다.

## ■ 멀티미디어 노트북 썹크패드 760ED

한국 IBM이 멀티미디어 노트북 ‘썹크패드 760ED’를 새롭게 발표하고 시판에 들어간다.

133MHz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16MHz 메모리 및 1.2GB 하드 디스크를 장착하고 완벽한 PCI아키텍처로 이루어진 이 노트북은 현재 발표된 어떤 노트북보다 고급사양으로 꾸며져 있어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자랑한다.

또, 기본 16MB로 제공되는 메모리는 최대 80MB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1.2GB의 하드 디스크는 2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기존 ISA 버스에 비해 6~7배의 전송속도를 가지는 PCI 버스, 비디오와 그래픽에서 탁월한 향상을 가져온 PCI그래픽스, 16비트 PCMCIA와 PCI는 물론 고성능의 32비트 PCI카드를 지원하는 PCI버스와 노트북 PC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PCI도킹 옵션 등도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2MB의 비디오 램과 64비트 그래픽 프로세서, 4배속 CD롬 드라이브, MPEG2 풀 모션 비디오 칩과 함께 세계 최대 크기인 12.1인치 SVGA 블랙 매트릭스 TFT LCD를 장착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핸드프리 전화기능, 자동응답기능 및 미디 신서사이저 기능 등이 있고 Li-ION배터리를 2개까지 내장할 수 있다.

## ■ 인터넷용 DB프로그램 웹 어레이저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데이터들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방대한 웹페이지 주소들과 그 곳을 각각 방문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에 대한 메모는 어떻게 해야할 지, 유용한 접속이었을 경우 그에 대해 어떻게, 어디에 메모를 남겨야 할 지 등 열거만해도 혼란스러워진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많은 자료들에 대한 정리, 보관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가 바로 웹어레이저(WebArranger)이다.

CE소프트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웹어레이저는 사용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메뉴에 사용자가 내용을 채워넣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첨가하고 싶은 필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필드를 채우는 데이터베이스류는 각 필드를 적절히 변형해 첨가하고 싶은 기능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고정된 필드를 가진 웹어레이저는 이 화면이 화려하며 깨끗하고 검색속도가 빠르고 일정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웹어레이저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제품들과는 달리 시스템 7.5 이상과 램 12MB 이상, TCP/IP 등으로 설치 요구 사양이 다소 높아 저가의 맥(Mac)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다.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연결기능까지 포함시켜 필드의 주소를 클릭해 주면 바로 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한글이 깨진다는 단점이 남아있다. 가격은 79달러이다.



## ■ 새로운 통신서비스 CT-2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CT-2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6월 수도권 지역 CT-2사업자로 선정된 나래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은 수도권에서의 발신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었다.

CT-2란 영국에서 처음으로 상용화가 시작된 발신용 휴대폰.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일반 가정용 무선전화기(CT-1)를 거리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CT-2(The Second Generation of Cordless Telephone)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소형, 저출력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보행자 중심의 서비스로 태어난 CT-2의 장점중의 하나는 고감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방식이며 셀 반경이 작은 마이크로셀 (전파의 크기가 200m 내외)이라 일반 디지털 휴대폰을 능가하는 고감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CT-2는 단말기 가격 및 이용료가 매우 저렴하다. 그동안 무선호출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중에는 셀룰러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연락도구로써 공중전화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서비스 이용 요금면에서도 일반 공중전화 요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 기존의 셀룰러 휴대폰이 갖는 단말기 및 이용요금상의 비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서비스로 정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SP-D200'을 권장가격 20만원에 출시할 계획인데 한국통신에는 10만대 기준으로 13만원 이하에 공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CT-2는 발신만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의 단점으로 지적되면서 여러가지 보완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업체가 고려하고 있는 단순 무선호출 기능을 내장하는 방법 외에 'Meet Me' 서비스, 자동 및 수동착신 기능을 부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무선호출 내장 및 'Meet Me' 서비스는 간접착신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동착신 및 자동착신은 CT-2단말기상으로 바로 착신이 가능한 직접 착신 방법이다.

'Meet Me' 서비스는 발신자가 CT-2단말기에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끊지 않고 대기하고 있으면 CT-2가입자가 CT-2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어 대기하고 있는 발신자와 통화를 하는 서비스이다. 이때 만약 CT-2가입자가 일정시간(30초)

내에 발신자가 대기하고 있는 시스템상으로 전화를 걸지 못할 경우 발신자는 시스템에 음성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이 서비스는 CT-2교환기상에 부가시스템이 필요하다. 수동착신은 CT-2단말기 가입자가 이동시 직접 자기 위치를 지구에 등록, 이 기지국을 벗어나지 않는한 착신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수동착신까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완료됐으며 수동착신의 경우 이 신제품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입자가 수동으로 위치를 등록하지 않아도 기지국이 단말기를 추적, 자동착신이 가능하다.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DECT의 경우 현재로서도 자동 착신이 가능한데 국내업체로는 삼성전자가 DECT단말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독일을 위시한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DECT는 자동착신이 가능한 CT-3의 개념으로 급속도로 확산돼 내년 상반기에는 전 유럽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CT-2단말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무선호출기능을 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무선호출기능이 내재된 CT-2단말기는 모토로라가 개발한 '실버링크(SILVERLINK)' 라는 제품이 유일한데 모토로라는 이미 CT-2단말기 생산라인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토로라CT-2단말기를 공급할 계획이었던 LG전자는 국내 시장추이를 보아 향후 타 외국회사와 기술 제휴를 하거나 혹은 자체개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CT-2단말기 사업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국내 제조업체로는 텔슨전자, 스탠더드텔레콤, MIT, 한국통신 등이 있다. 이중 텔슨전자는 빠르면 6월 중으로 무선호출 기능이 내장된 신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스탠더드텔레콤은 무선전화기 생산업체인 자회사 윈텔(Wintel)을 통해 올해안에 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역시 무선호출 기능을 탑재할 방침이다.

전국 CT-2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통신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수도권 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나래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은 그동안의 해외 사례 등을 거울삼아 CT-2의 발전방향을 검토, 더욱 발전시켜 무선호출이 결합된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착발신 겸용서비스 및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한 차세대 PCS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①7